“수행·돌봄 결합 ‘진각복지’ 새 모델 모색”

진각종, 6월 25일 진각전승원서
창교절 기념 진각복지 심포지움
석인 정사 ‘생산적 복지’ 강조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진각종은 6월 25일 서울 총인원 진각문화전승원 대강당에서 ‘2026년 창교절 기념 진각복지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사진은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이 창교절을 맞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불교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의 장을 마련했다.

진각종은 6월 25일 서울 총인원 진각문화전승원 대강당에서 ‘2026년 창교절 기념 진각복지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밀교사회복지와 진각복지’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진각복지의 역할과 밀교적 사회복지 실천 방안, 종교복지의 미래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덕화심인당 주교이자 진각대 교학처장인 석인 정사는 발제 ‘초고령화시대 진각복지 활동의 방향성 연구’에서 먼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진단하고 노인복지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현강 정사)은 설립 이후 복지시설 운영 확대에 주력하며 현재 30여 개 시설을 운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석인 정사는 “노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 정책과 종교계의 역할이 함께 확대돼야 한다”면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진각복지의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생산적 복지를 강조한 석인 정사는 교화와 수행이 사회복지 실천으로 이어지는 진각복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종단 차원의 명확한 복지 비전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연구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언했다.

재정지원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신행을 통해 조성된 희사금을 적극적인 복지사업에 투자하고 복지기금을 확대 조성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단과 사찰, 개인이 각각 추진하는 복지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석인 정사는 “이상적인 복지 모델도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며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서도 장기적인 비전을 함께 품고 나아갈 때 진각복지가 초고령사회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진각복지재단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길정수 진각복지재단 법인처 국장) △밀교의 사회복지사상과 실천방법에 관한 연구(진각종 총무부장 원상 정사) △진각밀교의 사회복지실천을 통한 교화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법륜심인당 주교 현일 정사) △한국 은퇴 성직자의 노후복지에 관한 연구(전 한성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과 교수 법보 정사)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학인·교수사 스님들, 간화선 실참하고 미래교육 모색

6월 27~28일, 한국문화연수원서
학인수행 프로그램 · 세미나 개최



조계종 교육부가 6월 27~28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개최한 ‘불기2570년 학인수행 프로그램과 상주교수 세미나’에는 전국 사찰승가대학 학인 스님 121명과 사찰승가대학 · 사찰승가대학원 교수사 스님 58명이 동참했다.

전국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이 수불 스님(안국선원장)의 지도로 간화선을 실참하고, 교수사 스님들은 AI시대 승가교육 방향을 모색했다.

조계종 총무원 교육부는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불기2570(2026)년 학인수행 프로그램과 상주교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사찰승가대학 학인 스님 121명과 사찰승가대학·사찰승가대학원 교수사 스님 58명이 동참했다.

올해 학인수행 프로그램은 ‘간화선 실참 선명상 심화교육’을 주제로 마련됐다. 학인 스님들이 간화선 화두 참구를 직접 체험하고 수행 과정에서 부딪히는 의문을 점검받으며 올바른 수행 방향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날에는 입재식과 수불 스님의 입재법문, 화두 참구와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둘째 날에는 참선과 화두점검, 회향법문이 이어졌다.

같은 기간 열린 상주교수 세미나는 ‘AI와 몰입 기반 교수학습방법론의 이해와 적용’을 주제로 열렸다. AI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한 경전 학습법, 몰입 기반 교수학습 방법론, 사찰승가대학 교수사들의 교육 사례 발표 등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승가교육 방안을 논의했다.

입재식에서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교육부장 유정 스님이 대독한 입재사에서 “AI시대에도 불교 수행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간화선 실참을 통해 수행과 교육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재법문에 나선 수불 스님은 간화선 수행의 핵심은 체험과 점검임을 거듭 강조하며 “화두를 들어 의심을 일으키고, 그 의심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반드시 선지식에게 점검받아야 수행이 바로 선다”고 말했다. 이어 “화두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두를 어떻게 이어가고 의심을 지속하느냐”라며 “화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생명을 걸고 타파해야 하며, 선지식과 끊임없는 문답과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불 스님은 “간화선은 어렵고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가장 빠르고 바르게 본래 마음을 확인하는 길”이라며 “대한민국에는 훌륭한 선지식들이 여전히 계신 만큼 적극적으로 찾아가 배우고 끊임없이 점검받으며 정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인 스님들은 법문 후 화두 참구와 질의응답, 참선을 이어가며 수행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주=유재상 충청지사장

‘만남중창단’에 듣는 이웃종교 마음공부법

대행선研, 27회 계절발표회
7월 18일, 안양 한마음선원
4대종교 마음공부 발제 진행

4대 종교 성직자로 이뤄진 합창단인 ‘만남중창단’이 각 종교의 마음공부법을 전하는 발표회가 열린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에서는 7월 18일 오후 1시 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27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대행 선사의 한마음 생활참선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대행선연구원에서는 대행 선사의 선사상과 교화행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불교사상을 집중 조명하기 위해 매년 4회의 계절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여름을 맞아 열리는 이번 계절발표회는 종교 화합 중창단 ‘만남중창단’을 초청해 ‘이웃종교와 마음공부’라는 대주제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한다.

성진 스님은 ‘불교의 마음공부, 참선-마음은 마음을 볼 수 없다’를 이야기하며 개신교 김진 목사는 ‘개신교의 영성 이해와 마음공부’를, 가톨릭 하성용 신부는 ‘천주교의 마음공부, 피정’을, 원불교 박세웅 교무는 ‘원불교의 마음공부, 무시선법’의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들이 가르치는 마음공부법을 전한다.

아울러 주제발표와 토론 사이에 ‘만남중창단’의 짧은 공연도 진행돼 기대를 모은다. 발표 후에는 청중과 함께하는 토론 자리가 마련돼 이웃종교의 마음공부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대행선연구원의 계절발표회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산·경남 미래세대 포교 원력 모은다

7월 19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부산 · 경남 포교역량 결집대회’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부산·경남 지역 포교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세대 중심의 새로운 포교 모델을 제시하는 대규모 결집대회를 연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제14구교구본사 범어사, 제15교구본사 통도사가 공동 주관하는 ‘부산·경남 지역 포교역량 결집대회’가 7월 19일 오후 1시 30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조계종 포교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포교역량 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인천·강화, 대전·세종·충청, 올해 경남·밀양에서 이어온 지역 포교 결집 사업의 성과를 부산·경남으로 확대하는 자리다.

대회에는 부산·경남 지역 사찰과 포교·신행단체, 어린이·청소년 포교단체, 청년단체 등 사부대중 약 2000명이 참석해 지역 포교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다짐한다. 특히 미래세대 실천선언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포교 원력을 모으고, 지역 포교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포교 역량 퍼포먼스도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불교문화체험부스와 문화공연이 운영된다. 어린이 연합합창단은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형 포교의 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조계종 포교부는 이번 결집대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부산·경남 지역의 포교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교부는 “이번 대회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역 불교의 미래 주체로 성장하고 사찰과 포교단체, 신행조직이 함께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포교 모델을 구축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운 기자 vjw33@hyunbul.com

